

2017년 북한 핵실험과 혐오정치, 김정은, 트럼프, 극우

— 요나스 요나손,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2018)

李炘宣*

I. 들어가며: 2017년 북한 핵실험	민주주의
II. 북한 핵실험과 김정은, 트럼프, 러시아	IV. 나가며: '태블릿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III. 난민과 테러, 혐오와 극우 창궐 그리고	

• 국문초록

2019년 세계적 유명작가 요나스 요나손(Jonas Jonasson)의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Hundraettaringen som tankte att han tankte for mycket)』(2018)이 한국에 번역되었다. 2016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2017년 북한 핵실험의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의 충돌이 있었다. 이를 지켜보면서 스웨덴 작가는 핵전쟁 위협뿐만 아니라 혐오정치의 확산과 스웨덴과 독일 등 유럽에서 극우정당의 성장을 상기하게 된다. 그러면서 작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고 싶어요. 또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좋을지도 간접적으로 얘기해 보고 싶고요”라며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당대의 문제와 진실, 교훈을 공유하고자 하는 작가가 고심하여 창출한 소설이기에 이 작품이 정치소설로서 지닌 정치적 관점과 의미는 더욱 究明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핵실험, 난민, 혐오, 가짜뉴스, 정치적 올바름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I. 들어가며: 2017년 북한 핵실험

2019년 작가 요나스 요나손(Jonas Jonasson)의 유머소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Hundraettaringen som tankte att han tankte for mycket)』(2018)이 한국에 번역되었다. 요나스 요나손은 1961년 스웨덴 벵세에서 태어나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스웨덴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했으며 졸업 후 15년간 스웨덴 중앙일간지 『엑스프레센』에서 기자로 일했다. 그는 1996년 OTW라는 미디어 회사를 설립해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나 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의사의 말에 돌연 회사를 매각하고 20여 년간 일해 온 업계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요나손은 스위스로 이주한 뒤 오랫동안 구상해 온 소설을 집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세계적으로 1천만 부가 넘게 판매된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2009)이다. 세계사의 주요 순간마다 우연히 끼어들게 된 주인공의 파란만장한 노정을 그린 이 소설은 가벼운 재미와 묵직한 감동을 한꺼번에 안기면서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그 이후 발표된 『셈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킬러 안데르스와 그의 친구 둘』,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역시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큰 인기를 누리며 ‘요나손 열풍’을 이었다. 특유의 능청스러운 입담과 풍자가 돋보이는 요나손의 소설 4종은 전 세계에서 1천5백만 부 이상 팔렸다. 현재 그는 스웨덴의 섬 고틀란드에 정착해 가족과 함께 닭을 키우며 목가적인 삶을 살고 있다.¹⁾ 본고에서 살펴볼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은 요나손의 통산 네 번째 소설이다. 스웨덴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백 년이 넘는 세월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세계사의 주요 사건에 끼어들게 된 주인공 알란 칼손. 백 살 생일날 양로원 창문을 넘어 도망쳤던 알란이 이번에는 백한 살 생일날 열기구를 탔다가 조난당하며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

「요나손 씨, 혹시 생각 안 바꾸셨수? 내가 <정말로> 늙어 버리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돌아다니지 않으려우?» 그건 내 계획에 없는 일이었다. 나는 아마도 유사 이래 가장 한심한 시대였을 지난 세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이미 다 해 버렸다. 난 우리가 다같이 20세기의 고약했던 점들을 기억해 본다면, 이런 실

1) 요나스 요나손 저, 임호경 역,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2018), 열린책들, 2019, 1면.

수들을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내 메시지를 따스하고도 유머러스하게 포장했다. 내 책은 전 세계에 퍼져 나갔다. 하지만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내 안에 있는 알란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인류는 계속 앞으로 …… 뭐, 그게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이어지는 사건들은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난 그저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내 나름의 방식으로, 혹은 알란의 방식으로 말이다. …… 「세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고 싶어요. 또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좋을지도 간접적으로 얘기해 보고 싶어요.」²⁾(밑줄 강조, 인용자)

세계적인 유머작가 요나스 요나손은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을 쓰게 된 배경을 「머리말」에 밝혔다. 작가는 전작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에서 “아마도 유사 이래 가장 한심한 시대였을 지난 세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이미 다 해버렸다. 난 우리가 다같이 20세기의 고약했던 점들을 기억해 본다면, 이런 실수들을 저지할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이어지는 사건들은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안겨 주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요나스는 20세기를 가장 한심한 시대로 여겼는데 21세기는 더 불안했다. 그러면서 작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고 싶어요. 또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좋을지도 간접적으로 얘기해 보고 싶고요”라며 소설 주인공 알란 칼손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2018)은 스웨덴 사람이 바라본 21세기의 세상사였다. 이 작품이 2019년 한국에 번역되었다. 책의 겉표지는 핵을 등에 엮은 노인의 모습이 있고 표지 안쪽에는 핵과 김정은, 트럼프가 그려져 있다. 번역자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요나손의 작품들을 그저 유쾌하고도 행복한 기분으로만 번역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책들이 툭툭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진실인지(일테면 <세상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자체일 뿐이란다>) 빠져리게 느끼고 있고, 또 그 말들에서 비할 바 없는 삶의 지혜와 위안을 얻어 왔음을 고백한다. 한 가지 개인적 소망이 있다면, 다행스럽게도 꿈틀대기 시작한 비핵화 작업이

2) 요나스 요나손 저, 임호경 역, 「머리말」, 앞의 책, 5~6면.

부디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이 풍자소설의 소재가 되는 일이 제발 이번만으로 그쳤으면 하는 것이다”³⁾라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 유머 풍자소설은 작가 요나스가 북한 핵개발을 추진하는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갈등을 목도하면서 불안을 느끼며 쓴 작품인 것이다. 드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기간(2017.1~2021.1)과 작품의 출간시점을 감안하면 이 작품은 트럼프의 임기 첫째 2017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작가가 속한 스웨덴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이고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을 표방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1인당 GDP가 5만 달러가 넘을 정도로 부유하며 복지제도가 잘 구축된 북유럽 국가에 속한다. 한국에서 스웨덴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복지국가로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정도이다. 이처럼 한반도, 미국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듯한⁴⁾ 북유럽의 스웨덴 출신의 작가 요나스 요나손은 2017년 핵무기를 둘러싼 김정은과 트럼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21세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일까. 또한 작가는 전작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을 쓰면서 20세기의 고약했던 점들을 기억한다면 같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소설의 사회적 기능 및 파급력에 대한 무력감을 체감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21세기의 문제를 새롭게 지적한 작가의 소설은 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자 했던 것일까.

유머소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은 기본적으로 주인공 알란 칼손의 모형 서사여서 에피소드의 연속이고 유머와 풍자를 이용한 작가의 서사적 특성이 반영되어 ‘현실’이 제한적이고 희극적인 방식으로 논의되어 간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만 작품의 현실은 작가의 정치의식을 반영한다. 21세기 세계의 정치현실을 목도한 작가가 실망하고 불안해하며 소설을 썼기 때문이다.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당대의 문제와

3) 임호경, 「옮긴이의 말」,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520면.

4) 한국의 대중은 스웨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국학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다. 스웨덴과 북한의 관계는 일종의 특수관계이다. 1970년대 초반 북한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한 스웨덴은 현재도 평양에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서방 국가 가운데, 스웨덴은 북한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가 아닌가 생각된다. 2018년에는 스웨덴이 북한과 미국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스웨덴도 북한과 비슷하게 핵개발을 시도했던 국가였다. 스웨덴은 핵개발 전까지 갔다가 포기를 했다. 핵개발을 추진할 때의 집권당은 사회민주당이었다.

진실, 교훈을 공유하고자 하는 작가가 고심하여 창출한 소설이기에 이 작품이 단순한 유머소설이 아니라 정치소설로서 지닌 정치적 관점과 의미는 더욱 究明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정치비판이라는 맥락에서 이 작품은 작가 요나스 요나손이 생각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조명하는 의미가 있다.

II. 북한 핵실험과 김정은, 트럼프, 러시아

작가는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을 ‘북한 핵개발과 북미갈등의 서사’와 ‘스웨덴과 유럽의 정치 상황을 다룬 서사’, 이 두 서사의 축으로 구성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전자를 살펴보고 후자는 다음 장에서 다루었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2017.1)과 그 첫해인 2017년 12월까지이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은 스웨덴에서 돈다발이 든 트렁크를 습득한 주인공 알란 칼손(101세)이 좀도둑이자 사기꾼 아스파라거스 사업가 울리우스 온손(69세)을 피어 인도네시아 발리로 도망가 고급호텔에서 풍족한 무위도식의 삶을 즐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알란과 울리우스는 알란의 백한 살 생일날 열기구를 탔다가 조난당하며 모험이 시작된다. 이들은 열기구의 가스가 떨어져 인도양에 추락하게 되는데 지나가던 북한 벌크화물선 ‘명예와 힘’호가 이들의 조난신호를 발견하고 구조해준다. 그런데 이 선박은 농축우라늄 4kg을 북한으로 밀수하는 중이었다. 두 노인의 정체를 심문하는 선장에게 울리우스는 알란이 핵무기 전문가라고 둘러댔고 깜짝 놀란 알란도 “친구가 즉흥적으로 꾸며낸 소설을 계속 이어가 예전에 사람들이 원자폭탄이라고 불렀던 것을 똑딱 만들어냈”⁵⁾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선장이 김정은에게 보고하면서 알란은 순식간에 핵무기 전문가로 인식되고 만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를 발사해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다. 이 해에 스웨덴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스웨덴 외무장관이자 UN안전보장이사회 스웨덴 대표인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북한의 최고 영도자와 비공식적으로 직접 대화하기 위해 북한 정권을 설득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바다에서

5)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67면.

갑자기 등장한 핵전문가 알란과 스웨덴 외무장관을 이용해 언론플레이를 하기 위해 장관을 초청했다. 농축우라늄 제조를 요구받은 알란은 북한이 밀수한 4kg 농축우라늄이 든 가방을 훔쳐 스웨덴 외무장관의 비행기를 타고 함께 미국 뉴욕 UN본부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그 직후 UN 주재 독일대사에게 몰래 우라늄을 떠넘기고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간 두 노인은 우연히 장의사 가게를 운영하는 사비네 욘손(59)이라는 여성에게 신세를 지게 되고 함께 지내며 장의사업을 확장하다가 관이 바뀌어 스웨덴의 신나치에게 원한을 사게 되고 쫓기게 된다. 그래서 이 세 명은 새로운 사업으로 신점(무당의 일종)을 운영하기 위해 스웨덴에서 덴마크의 국경을 넘어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거쳐 케냐의 마사이마라에서 유명 주술사를 만나는 등 새로운 모색을 하다가 북한으로 농축우라늄 4백kg을 운반하기 위해 케냐의 마사이마라(Maasai Mara, 대초원)의 키코로크 공항을 이용하려던 중개업자(러시아 정보원 굿럭 윌슨)로부터 우라늄을 탈취하게 된다. 알란은 또 다시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연락하여 이 농축우라늄을 전달한다. 이 무렵 알란 일행은 신점 대신 케냐 고원에서 아스파라거스 사업을 구상 중이었기 때문에 알란은 핵을 넘기는 대가로 아스파라거스를 키우기 위한 최상급의 4백 톤 흙을 매입할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농축우라늄 밀수는 실패로 돌아가고 알란 일행이 케냐에서 만든 아스파라거스가 독일 전역에서 판매되면서 작품은 끝이 난다.

이와 같이 이 소설은 주인공 알란 칼손이 북한이 밀수한 농축우라늄 4kg을 들고 탈출해 미국으로 가버리고 작품 후반부에는 농축우라늄 400kg을 우연히 추가 획득해 독일 총리에게 넘겨 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품의 제목이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알란 칼손이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도록 설정했다. 이러한 작가의 서사전략에 따라 이 작품은 두 지도자의 면모를 가시화하는 서사가 된 것이다. 요나스 요나손은 작품에 “등장한 지도자는 김정은과 도널드 J. 트럼프였고, 2017년 북한과 세계 나머지 국가들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⁶⁾고 적고 있다. 작가 요나스는 21세기 세계정치를 불안 하게 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김정은과 트럼프, 북핵 문제’를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포착한 두 지도자를 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북미관계와 2017년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6) 앞의 책, 101면.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개시했고 2002년 부시 대통령은 의회 상하 양원 합동연설에서 ‘악의 축’을 언급했다. 미국의 ‘악의 축’은 흔히 이라크, 이란, 리비아, 북한과 같이 반미 정권이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갖고자 애쓰는 국가였다.⁷⁾ 2005년 핵무기 보유 선언에 이어 2012년 김정은은 헌법을 개정해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2013년 상반기에는 잇따른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그리고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으로 미국과 정면대결을 불사했다. 북한은 2016년⁸⁾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문제의 2017년 1월 1일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던 트럼프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트위터를 올렸다. 4월 26일에는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한국 성주 롯데 골프장에 기습 배치했다. 하지만 북한은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다. 그러자 8월 5일 트럼프는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북한은 이제껏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9월 19일 트럼프는 UN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지칭하면서 “그가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정권에 대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11월 29일 북한은 ICBM ‘화성-15형’(정점고도 4,475km, 수평 비행거리 1,000km 기록)을 발사하여 비로소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미국 수도 워싱턴DC를 포함해 동부 주요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7) 앨런 브링클리 저, 황혜성 외 역,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3』, 휴머니스트, 2011, 601~603면.

8) 2016년 2월 남한의 박근혜 정부(북한붕괴론)는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다. 폐쇄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공식적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김연철, 『70년의 대화』, 창비, 2018, 292~293면). 또한 2016년 3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는 북한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핵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토록 전 세계와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국제협력,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3월 3일 공포했다. 북한인권법은 2016년 9월 4일 시행되었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는 9월 28일 출범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날,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임기홍, 『위기의 남북관계』, 역사인, 2016, 563~564면.

그리고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고 “적들의 핵전쟁 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 작전태세를 항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연구개발 및 시험 단계에서 생산 및 배치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의사와 ‘경보 즉시 발사’ 태세 구비를 선언적으로 밝힌 것이다.⁹⁾ 특히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유명한 강경 발언을 했다. 이에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방금 ‘핵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있다’고 했다.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핵 단추가 있다는 사실을 식량이 부족하고 굶주린 정권의 누군가가 그에게 제발 알려주겠느냐”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내 버튼은 작동한다”고 덧붙였다.¹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미 갈등은 외양적으로 ‘악의 축이자 반미국가 대 자유진영의 리더국가’의 대결구도였지만, 2017년 김정은과 트럼프의 모습은 군사적인 힘, 특히 핵무기에 의한 평화를 신봉하는 ‘핵 시대의 쌍생아’였다. 두 정치지도자의 갈등은 자칫 우발적인 핵전쟁을 초래할 수 있었고 핵무기는 절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류 사회의 ‘핵 금기’를 건드리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과 미국 지도자의 말폭탄’이 주는 이중의 전쟁공포에 노출되어 있었다. 작가 요나스 요나손 역시 스웨덴에서 두 지도자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핵전쟁 발발 위기와 세계핵전쟁 확전의 위험을 느끼고 이 소설 집필을 전개해갔던 것이다.

북·미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스웨덴의 작가가 전쟁공포와 불안에 휩싸일 정도로 북미 대립은 세계평화의 실제적 위협 요인이었다. 작가는 작품에서 김정은과 트럼프를 두고 “태평양 양편에 하나씩 서 있는 거대한 자아,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두 개의 흑덩이였다.”¹¹⁾ 라는 정치적 평가를 했다. 또한 작가는 두 사람을 “미치광이”로 칭했으며, “유머감과 자기반성 의식이 없기로는 둘이 난형난제였다.”¹²⁾고 지적했다. 작가 요나스는 자신의 작품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어떤 점을

9) 정옥식, 『핵과 인간』, 서해문집, 2018, 589~603면.

10) 「트럼프 “내 핵단추 더 크다” …… 김정은에 맞붙’, 『한겨레』, 2018.1.3.

11)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505면.

비판하고자 했던 것일까.

김정은과 관련해 작가는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에서 지도자로서의 면모와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주목했다. 먼저 지도자 김정은은 “20대밖에 안 되는 새파란 청년”일 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다. 그의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의 국민은 “배고픈 백성”이었고, 아버지가 파산시킨 나라의 국민은 “굶주린 백성”이었다. ‘어린 김’은 “산전수전 다 겪은 부하들을 거느리게 된 새파란 애송이”였다. 하지만 “어린 김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다. 고모부는 불륜 등의 죄목을 뒤집어쓰고 사형에 처해졌다.” 또한 2017년 2월 13일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극물로 암살당했다. 잔혹한 독재자 김정은은 “북한식 공산주의 시스템을 조금이나마 개선했고, 덕분에 이 나라의 식탁에서 찬바람이 부는 일은 전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부족한 군비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핵무기를 갖추기 시작하고 ICBM급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이제 ‘어린 김’이 아니라 ‘최고 영도자’로 불리게 되”었으며 트럼프와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미치광이’로 불릴 만큼 강한 배포를 지닌 지도자로 부상했다.¹³⁾

우라늄 몇 킬로그램을 가지고는 —심지어는 반 톤을 가지고도— 전면전에서 승리하기에는 충분치 못했지만, 김정은이 의도하는 바는 그게 아니었다. 그는 남한이나 일본을 공격하는 것은 세계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혹시나 미국을, 아니 꿈이라도 적중시킬 수 있다면 말할 것도 없었다. 물론 4킬로그램은 별것 아니었지만, 그의 진정한 목적은 다른 데에 있었다. 즉 그의 힘을 보여 줌으로써 워싱턴의 개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했던 짓을 북한에게도 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게 하는 거였다. 양갈지게 물어뜯을 힘이 없는 나라는 산 채로 잡아먹힌다는 사실을 역사는 보여주었다. 또 핵무장 프로그램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수사(修辭)를 가능케 함으로써, 인민의 사기와 최고 영도자의 위상을 드높일 수도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¹⁴⁾

12) 앞의 책, 126~127면.

13) 앞의 책, 53~55면.

14) 앞의 책, 82면.

이와 같이 스웨덴 작가는 의외로 김정은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고평하고¹⁵⁾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에 집중 할 수밖에 없었던 국제관계와 국내정치까지 기술하여 독자에게 김정은의 선택을 이해시키는 서사 효과를 낳고 있다. 가령 김정은의 목적은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했던 짓을 북한에게도 하려는 생각을 포기하게 하는 거였다.” 김정은의 핵개발은 외세로부터 체제 보장과 정권 안전을 위한 자위력 강화였다. 또한 “핵무장 프로그램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수사(修辭)를 가능케 함으로써, 인민의 사기와 최고 영도자의 위상을 드높일 수도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하지만 작가는 북한 체제와 정권을 안정시킬 만큼 자신감이 찬 김정은을 혈육을 죽인 냉혹한 지도자이자 ‘아무 말이나 내뱉는 트럼프’와 반대로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¹⁶⁾는 “자아도취증 환자”로 규정했다. 김정은에게 “<평화>는 그의 나라가 치명적인 무기를 더 많이 갖추는 것을 의미”¹⁷⁾했다. 그런 점에서 핵무기를 통한 평화 추구 노선의 김정은은 세계평화를 뒤흔드는 원흉일 수밖에 없었다.¹⁸⁾

지난 60년 동안, 그리고 알란이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본 이후로 이 원자폭탄의 영역에서는 꽤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최고는 아닌 듯 했다. 오히려 <초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았다. 전문가들 말로는, 이 나라의 플루토늄 공장은 그들이 바라는 물질을 여전히 생산해 내지 못하고 있다. …… 알란은 말을 이었다. 「당신네의 첫 번째 핵실험 결과로 보건대, 당신네는 아직 플루토늄을 만들어 낼 솜씨가 없거나, 아니면 우라늄이 충분치 못한 거야. 어찌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우라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당신네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15) 김정은 체제는 당의 기능을 정상화해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내각의 권한을 부여했으며 대체로 원로와 전문관료를 계속 등용하면서 세대교체를 추진했다. 김정은은 내각총리로 전문 경제관료를 임명해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해 기업의 자율성과 분권을 허용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했다. 김연철, 『70년의 대화』, 창비, 2018, 286면.

16)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154면.

17) 앞의 책, 121면.

18) “UN 본부에서의 일반적인 견해는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능력은 제한적이며, 김정은이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것은 바로 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거였다. 그렇지만 위협은 실제적이었다. 핵무기는 너무나도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조잡하게 만들어진 소형 폭탄 하나만으로도 서울이나 도쿄 같은 도시 하나를, 혹은 괌 같은 섬 하나를 날려 버릴 수 있었다.” 앞의 책, 118면.

이 분야의 지진아들이 흔히 겪는 문제이지. 사람들이 당신네를 비웃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냐.»¹⁹⁾

실제로 김정은이 자랑하는 북한의 ‘핵개발 및 핵공격 능력’의 실제적 위협의 정도가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작가 요나스도 이 점에 주목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고평된 것과 달리 작가는 이 소설에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을 현저히 낮게 평가했다. “실질적인 힘의 과시가 되기에는 어렵도 없었다.”²⁰⁾ 예를 들어 작품 속 평양 원자력 연구소 소장과 영변 플루토늄 공장의 책임자는 한심한 수준이었다. 북한 공장의 능력으로는 플루토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다. 원심분리기가 있어야 하는데 러시아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대신 러시아는 콩고에서 우라늄을 얻을 수 있다고 북한에 말해준다. 그래서 우라늄 제공자와 루트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북한이 우선 선박으로 4kg의 우라늄을 밀수하게 되고 그 과정에 알란 칼손이 구조되면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작품과 달리 역사적으로 보면, 2017년 이전 이미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를테면 2017년 7월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고 핵무기의 3요소(핵탄두의 원료가 되는 핵물질(플루토늄, HEU), 운반수단(미사일), 기폭장치(수천분의 1초 동안 핵물질이 분열을 일으키도록 하는 장치))를 모두 갖췄으며 농축우라늄(HEU) 758kg과 플루토늄 54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핵탄두 1개를 만드는 데 플루토늄 4~6kg, 고농축우라늄 16~20kg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당국의 추정치를 고려하면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로 플루토늄탄 9~13개, 고농축우라늄탄 37~47개를 만들 수 있었다.²¹⁾ 그리고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017년 11월 29일 새벽 사정거리 13,0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5호 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이 작품에서 서술한 북한의 핵개발 능력 수준은 앞서 말했듯이 아직 초보단계에 불과했다. 북한의 자체 핵개발은

19) 앞의 책, 68~69면.

20) 앞의 책, 81면.

21) 「미 국방정보국 “북, 핵무기 60개 만들 고농축우라늄 보유”, 『중앙일보』, 2017.8.9.

한 번에 불과하고 그것도 성공적이지 않았다. 소설 속 북한의 연구진은 자체 핵개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플루토늄 생산 기술도 없고 원심 분리기도 없다. 우라늄 농축 능력도 없어서 외국 암시장에서 밀반입을 하는 형편이다. 주인공 알란 칼슨이 4kg 농축우라늄을 들고 미국으로 탈출해버리자 플루토늄 공장의 연구소 소장이 자살해버린다. 그제야 러시아의 푸틴은 북한에 하바롭스크 출신 엔지니어를 북한 플루토늄 공장 연구소의 신입 소장으로 보낸다. 러시아 신입 소장은 “불과 몇 주 만에 첫 번째 지하 핵 실험을 성공시켰다. 이 소식에 각국의 위성자들은 세상의 종말이 오기라도 하듯 법석을 떨어 댔는데, 모든 것은 다 러시아의 계획에 따른 거였다. 푸틴이 최고 영도자와 맺은 사전 합의에는 러시아도 다른 나라들처럼 충격을 받은 척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²²⁾ 그리고 파견된 러시아 엔지니어는 러시아에 원심분리기를 요청하여 푸틴이 북한에 원심분리기를 보내준다. 결국 북한이 밀반입을 시도한 4kg 과 400kg 농축우라늄은 모두 알란 칼슨에게 빼앗겨 독일로 보내지지만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원심분리기를 획득하여 핵개발 기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면서 작품이 끝나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 설정은 서방 세계가 북한에 핵개발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핵개발 능력의 향상의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었다. 그리고 2017년 김정은과 강하게 대립한 트럼프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핵개발을 시도하는 북한에 할 수 있는 조치는 경제제재와 예방전쟁론 시나리오밖에 없었다. 그래서 요나스의 소설에도 트럼프는 김정은을 향해 위협적인 전쟁 위협 발언만 할 뿐 실질적인 외교카드가 부족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상 이 작품의 중반까지만 등장하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도자의 면모만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작품에서 김정은을 “얼간이”, “미치광이”, “조그만 로켓맨”이라고 지칭하는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부정확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또 김정은을 계속 모욕하여 상황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일 터였다.”²³⁾ 그리고 작가는 스웨덴 외무장관의 입을 빌어 “〈조그만 로켓맨〉이라는 표현이 북한과의 대화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22)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253면.

23) 앞의 책, 183면.

한다. 주인공 알란 갈손도 트럼프와 대화를 하면서 속으로 “이 사람이 정말로 대통령 이야, 아니면 그냥 미치광이야? 뭐 역사를 살펴보면 대통령인 동시에 미치광이인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지만 ……”²⁴⁾이라고 생각한다. 작가는 트럼프가 세계평화의 수호자, 세계경찰의 리더국가의 대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리하면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은 2017년 김정일과 트럼프의 충돌과 (핵)전쟁 위협을 목도하면서 세계평화의 안정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을 썼다. 이때 작가는 젊은 김정은이 트럼프와 맞서는 최고영도자로 부상하고 정권 안전을 위해 핵개발을 시도하는 맥락을 가시화했고 세계 자유진영의 리더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과 적절한 외교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세계를 전쟁공포로 이끄는 트럼프의 성격적인 면을 부각했다. 이 과정에서 작가가 일부 왜곡한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일부 독자를 안심시켰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독자가 핵문제를 온전히 직시하는데 방해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작가는 국제정치학과 지정학적 맥락에서 북한 핵문제를 북미 갈등과 배후에 있는 러시아의 문제로 설정했다.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은 이 작품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²⁵⁾ 이 소설에는 러시아가 핵기술을 넘기고 경제적 지원까지 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 북한 핵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남한도 배제되어 있다. 2017년에는 남한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문재인 대통령(2017.5.10~2022.5.9)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데 이러한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다.²⁶⁾ 스웨덴 출신의 작가는 북한 문제의 당사자를 북미 관계와 러시아로 한정하는 유럽중심주의적 정치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국제사회와 서구 사람들에게 형성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가는 러시아 음모론을 무의식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그의 러시아에 대한 편견과 적대적 감정이 혐오로 발전하고 음모론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반러 소설이기도 했다. 즉 스웨덴 작가 요나스가 지향하는 정치세계에서 김정은, 트럼프, 푸틴이 모두 부정되는 것이다.

24) 앞의 책, 184~185면.

25)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90% 이상을 차지한다. 북·중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다.

26)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였다. 이는 2017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 기초하여 구축된 정책 기조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목표는 남북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 세계는 작가가 소속한 국가와 지역적 성격이 구성한 작가의 정체성이 투사된 결과물이다. 스웨덴은 중립국이다. 또한 스웨덴은 유럽공동체의 일원이다. 작가 요나스는 중립국 국민이자 유럽인으로서 스웨덴 국내 문제를 넘어 세계의 정치 현실과 그 파장을 걱정하는 세계시민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핵개발을 둘러싼 북미 갈등에서 미국은 문제 해결의 선도적 주체가 되지 못하는 점이 비판되고 미국 대신 초국가적 기구인 UN과 미국을 대신한 독일이 핵문제를 다루는 주체로 등장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스웨덴의 외무장관이자 UN안전보장이사회 스웨덴 대표인 마르그트 발스트룀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북한의 핵미수 문제에 관여했다. 하지만 작가가 유럽중심주의적 입장에서 북미 갈등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이 배제되는 한계가 창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명확한 것은 ‘핵무기 개발과 확보를 통한 평화 전략의 김정은 노선’과 ‘핵문제를 전쟁 위협으로 해결하려는 트럼프의 노선’이 본질적으로 전쟁을 막지 못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할 거라는 것이 작가의 정치적 올바름이었다.

Ⅲ. 난민과 테러, 혐오와 극우 창궐 그리고 민주주의

작가 요나스 요나손은 2017년 김정은과 트럼프의 충돌과정에서 트럼프의 국외정치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정치에도 주목하고 트럼프의 정치와 미국의 현실이 자국인 스웨덴과 스웨덴이 속한 유럽의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작가는 알란 칼손의 이동 경로에 스웨덴을 넣고 핵을 매개로 독일 메르켈 총리도 등장시켰다. 작가가 다룬 스웨덴과 독일 등 유럽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작품에서 트럼프의 정치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작가 요나스는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에서 트럼프의 ‘혐오정치와 가짜뉴스, 해고 정치’를 초점화 했다. 미국우선주의란 말이 보여주듯, 트럼프 정권은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했다. 북한은 2017년 말레이시아 국제공항 김정남 암살 사건 등을 이유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지만 9·11테러가 환기하듯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주체는 더 다양했다. 여기서 부각된 잠재적 테러범 문제가 경제적 양극화

및 종교 갈등,²⁷⁾ 이주, 난민 등 세계화의 부작용과 결부되면서 인종 혐오와 난민 배척 현상이 발생했다. 이 소설에서 트럼프는 백인우월주의자이고 “멕시코인은 강간범”, “이슬람교도는 전부 다 훨씬 흉악한 놈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인물이다.²⁸⁾ 트럼프는 트위터 등을 통해 이러한 인종 혐오를 퍼뜨리고 불법 이민자 밀입국 방지를 내세우며 장벽건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2017년 5월 22일에 미국-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으로 16억 달러를 요구하고 건설을 진행했다.

〈민주주의가 암흑 속에 죽어 간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외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나서 첫 1년 동안 행한 모든 거짓말과 허위 진술의 목록을 뽑았다. 이 제목을 자유롭게 번역해 보자면, 〈제발 진실이 승리하기를〉 정도가 되리라. 임기 첫째가 끝나 갈 무렵 대통령의 하루 평균 허위 진술은 5.5회였다. 하지만 대통령도 할 말이 없지 않았으니, 그가 이런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거짓말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반복된 거짓말들을 치사하게도 따로따로 계산에 넣은 것이다. 아무튼 대통령은 전임자의 건강 보험 개혁과 관련해 최소한 60번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뒤틀거나 왜곡했다. 또 미국에서의 조세 부담에 대해 말할

27) 최근의 극우 민족주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특정한 문화적 성향의 집단(주로 무슬림 집단)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 인종주의가 작용하여 이슬람교도와 테러리즘 집단이 동일시되고, 서구문명과 이슬람문명의 적대적 경향이 강조된다. 미국에서는 복음주의 교회와 보수주의 정치세력이 연합하면서 종교적 근본주의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들어 미국 기독교의 중심이 감리교나 장로교 같은 주류 교회에서 '복음주의'라 불리는 기독교 근본주의 계열의 개신교 교회로 옮겨갔다. 복음주의 교회는 주류 교회와 믿음의 내용과 믿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신자에게 큰 헌신을 요구한다. 종교 생활이 삶의 다른 모든 영역보다 상위에 있으며 삶의 전반을 통제해야 한다. 근본주의 종교는 성경 구절을 신의 말씀 그대로라고 주장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종교적 메시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고 그대로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한다. 기독교만이 절대적 진리이며, 다른 종교는 모두 거짓이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교회의 가르침이 종교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 등 삶의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복음주의 교회와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보수주의 공화당의 정치적 연대가 이루어졌다. 미국의 정치에서 가족 가치, 동성애, 낙태 등이 치열한 쟁점이 되는 이유는 바로 복음주의 교회와 정치적 세력이 연합해 있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교회는 미국이 기독교를 국시로 한 국가임을 강조한다. 이들은 미국에 기독교 이외의 문화가 전파되는 것에 부정적이다. 타 종교에 대한 다문화주의적인 관용은 미국을 타락시키는 자살행위라고 주장한다.' 이현송, 『혁신과 갈등, 미국의 변화』, 한울엠플러스, 2016, 329~344면.

28)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180면.

때는 140번이나 그릇된 주장을 했고, 그때마다 오류가 시정되었다. 가짜 미디어는 정말이지 <악의 화신>이었다.²⁹⁾

미국우선주의와 백인우월주의, 인종차별 및 혐오, 미국-멕시코 장벽 건설 등은 트럼프 정권의 지지자를 결속하는 기능을 했는데, 혐오는 트럼프의 ‘가짜뉴스’ 트위터 정치³⁰⁾와 결부되어 퍼지고 확산되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발언권을 활용한 선동과 가짜뉴스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자신의 발언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실이었고 자신을 비판하는 미디어가 “가짜미디어”였다. 이를 작가는 “<가짜뉴스>란 트럼프가 읽고, 듣고, 보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의미했다.”³¹⁾ 라고 표현했다. 작가 요나스는 작품에서 “임기 첫해가 끝나 갈 무렵 대통령의 하루 평균 허위 진술은 5.5회였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인용문에서 보듯 작가는 작품에서 신문의 기사 제목을 빌어 “민주주의가 암흑 속에 죽어 간다”고 평가했다. 요나스의 관점에서 트럼프의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었던 것이다.

작가는 트럼프의 국외/국내정치 방식을 ‘폭탄/해고 정치’로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으로 지낸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만큼 유쾌하지가 않았다. 그가

29) 앞의 책, 505-506면.

30) 트럼프는 트위터를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분열과 혐오의 언어를 전달하고 음모론 살포를 위한 메가폰으로 활용했다.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19년 10월 둘째 주까지 그가 올린 트위터를 분석한 결과 총 1만 1,390개의 트윗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00여 개가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대상은 트럼프에 비판적인 민주당 의원들이나 언론, 불법이민자들이었다. 특히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가짜뉴스(Fake News)’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언론은 미국 국민의 적”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다. CNN, NYT, WP와 같은 언론사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2020년 대선조작 음모론으로 인해 트럼프 지지자들의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습격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트위터는 2021년 1월 8일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박홍용, 『트러피즘은 사라지지 않는다』, 메이킹북스, 2021, 22~27면). 작가는 트럼프를 가짜뉴스의 양산자로 서술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와 공공정책은 가짜와 진실의 경계를 완벽히 구분할 수 없는 게 많다. 가짜뉴스에 과장이나 허위가 개입되더라도 일부는 진실인 경우가 많다. 정치와 정책에는 판단이나 의견, 이익, 감정이 개입하기 때문에 사실검증이 쉽지 않고 진영 간 갈등이 증폭하여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속적으로 양산되는 가짜뉴스는 전부 거짓은 아니기에 더 위험한 나쁜 뉴스가 되는 셈이다. 제임스 볼 저, 김선영 역, 『개소리든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다산초당, 2020, 329면 참조.

31)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181면.

가장 즐기는 취미 중의 하나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일이었다.” 자기편이 아니거나 실망시키는 사람은 어김없이 해고되었다. 해고는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두렵게 했다.”³²⁾ 그래서 트럼프의 국내정치는 일종의 ‘해고 정치’였다. 하지만 국외정치는 “좀 더 복잡했다.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들은 백악관 보좌관이나 상원 의원들보다 해고하기가 훨씬 곤란했다. 남은 옵션은 폭탄을 퍼부어 그들을 박살 내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폭탄>을 <고소>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잘 먹혔다. 하지만 적이 손에 핵폭탄을 들고 있는 땅떨막한 자아도취적 미치광이”에게만은 먹히지 않았다. 이처럼 작가에게 트럼프의 국외정치는 국내 해고정치를 변용한 강압외교 방식의 ‘폭탄 정치’였다. 자국우선주의와 혐오에 기반한 강압적 힘의 외교와 통치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었고 북한 핵개발 등 국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은 미국 트럼프, 백인우월주의집단 KKK 등과 관련된 인종 혐오와 난민, 극우(정당)³³⁾의 창궐 등의 현상을 스웨덴과 독일 등 유럽에서도 발견했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에서 ‘스웨덴’은 주인공 알란 칼손이 북한의 4kg 농축우라늄을 들고 미국 뉴욕UN본부로 갔다가 다시 고국인 스웨덴으로 복귀하면서 작품 중반에 최초로 등장한다. 돈이 없는 알란과 올리우스가 스웨덴 도착 후 장의업을 하는 사비네 욘손(59)에게 신세를 졌다가 관을 고객의 요구에 맞춰 특성 있게 제작하는 사업을 하는데 관이 바뀌어 “스웨덴 신나치 조니 앵발”에게 쫓기게 된다. 도망치는 알란 칼손 일행이 인접한 덴마크를 거쳐 아프리카 케냐로 가게 되는데 이때 스웨덴이 총 든 과격 신나치와 함께 다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가는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 스웨덴에도 신나치, 극우가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보여줬다.

32) 앞의 책, 180면.

33) ‘극우주의’는 우파적 이데올로기가 극단화된 사상이다. 정치적 의미의 좌파와 우파를 구성하는 내용이 시공간적으로 달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극우주의는 정치공동체의 주권자를 인종적으로 결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며 독일의 경우 나치의 유태인 배척주의 같은 반외국인 운동 및 국가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데올로기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 극우주의는 정치학에서는 독재적인 정부형태와 소비니즘적인 태도 및 국수주의에 대한 정당화를 의미하며, 사회학에서는 외국인, 유태인에 대한 배척과 사회 다원주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정의된다. 홍태영 외, 『유럽의 타자들』,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173면.

스웨덴의 네오 나치 단체인 북유럽 저항운동에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이 네오 나치들은 지리학적 논리보다는 생물학적 논리를 펼쳐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은 덴마크나 스웨덴이 아니라 아리아 인종, 아니 인류 전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안에는 비교적 온건한 스웨덴 민주당의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이들과 당장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길 원하는 이들이 한데 섞여 있었다. 케네트 앵발은 후자에 속했는데, 어느 날 북유럽 저항운동을 박차고 나와 자기 동생과 함께 <아리안 동맹>을 창설했다. 어느 날 북유럽 저항 운동이 정부에 시위 허가를 신청하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니, 무슨 놈의 <저항>이 이래? 시위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다니, 대체 누구한테 신청한다는 거야?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는 썩어 빠진 유대인 권력 엘리트, 다시 말해서 우리의 투쟁 대상인 놈들에게 허가 신청을 한다는 거야? 케네트가 보기에 문제는 간단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북유럽 국가들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추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³⁴⁾

작품에서 작가 요나스는 ‘스웨덴의 네오 나치 단체인 북유럽 저항운동’과 이민자 추방을 주장하는 온건 극우정당 ‘스웨덴 민주당’³⁵⁾ 그리고 신나치 케네트 앵발, 조니 앵발 형제를 거론했다. 스웨덴 신나치 형제는 “생물학적 논리를 펼쳐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은 아리아 인종”이라고 판단하고 “당장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길 원했다”. 그래서 케네트 앵발은 자기 동생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의 아리안 형제단과의 협력하에 ‘스웨덴 지부 아리안 동맹’을 창설했다. 이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북유럽 국가들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모두 추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다. 그래서

34)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261면.

35) 스웨덴 민주당은 반이슬람, 반난민, 반이민과 반유럽연합을 주장하는 극우정당이다. 스웨덴 민주당 2014년 9월 스웨덴 총선에서 12.9%를 득표해 원내 제3당이 되었고 유럽의회 선거에서 9.7%를 득표하며 최초로 유럽의회에 의석을 마련했다. 2018년 스웨덴 총선에서는 17.5%로 3위를 차지하며 스웨덴 민주당은 스웨덴 제1 보수야당과 2.3% 차이로 간격을 좁혔다. 그리고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15.3%를 득표하며 보수야당과의 격차는 1.5%로 좁혀졌다. 스웨덴에서 이민자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2000년대는 구 유고연방과 보스니아의 무슬림,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소말리아, 러시아 체첸이 주요 국가이었다. 2010년부터 이라크의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는데 2018년 시리아 내전에 의해 대규모 무슬림 난민이 유입된다. 반기성정치 하에 스웨덴 민주당이 원내에 진출한 직후 시점부터 스웨덴 사회에서 ‘이슬람 이민’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2018년에는 ‘이슬람 범죄’ 문제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문승준, 「네덜란드 및 스웨덴 극우 정당의 성장과 한계」,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21, 58~71면.

두 인물은 작품에서 다른 인종에게 매우 폭력적이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의 아리안 형제단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터키-이탈리아계 조직으로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의 코카인 시장을 탈취할 것을” 요구받았다. 스웨덴의 신나치가 미국의 조직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인종 혐오와 차별이 전 지구적 현상이라는 것을 환기하고 있다. 즉 작가 요나스는 스웨덴에 들어오는 난민과 인종 차별을 신나치, 극우정당의 꺾기 문제와 결부지어 문제시한 것이다.

실제로 작가는 스웨덴의 신나치 출현뿐만 아니라 테러 사건도 작품에 삽입했다. 작가는 작품에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트럭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고 총격전이 벌어진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고 서술했다. 이 사건으로 여러 명이 사망했는데 체포된 테러리스트는 “알라는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외쳤다. “세계 언론은 스웨덴이 이 사건을 통해 그 순수성을 상실했다고 떠들어댔다. 하늘 아래의 천국과도 같았던 이 북유럽 국가는 이른바 <난민>들을 너무 관대하게 대하다가, 그 값을 치르게 된 거”³⁶⁾라고 했다. 인종과 난민, 종교 갈등이 테러와 문화적 인종주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에 스웨덴 민주당만큼 과격한 다른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당이 제시하는 의견에 동의하든 않든 간에 그들에게 투표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진실을 더 크게 외칠 수 있게끔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 줘봤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거였다. 반면, 어떤 새로운 목소리에, 극우 중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거였다. 첫째, 스웨덴 민주당은 이 네오 나치들을 가리키면서 <저 끔찍한 놈들 봐! 우린 저놈들하고는 달라!>라고 말하고, 둘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거였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 스웨덴 민주당에 표를 던지는 것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이 될 거였다. 15퍼센트였던 득표율이 30퍼센트로 뛰고, 스웨덴에서 세 번째였던 스웨덴 민주당은 제2정당으로, 아니 제1정당으로 거듭날 거였다. 만일 스웨덴 민주당의 인물이 총리가 된다면,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스웨덴이 EU를 떠나는 일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정치계에 엄청난 변화가 몰아칠 거였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일 이 실험이 조그만 스웨덴에서 성공한다면, 나중에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될 나라에서 똑같

36)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328면.

이 반복되기만 하면 되리라.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에서.³⁷⁾

특히 작가는 다른 인종의 테러 사건을 ‘스웨덴의 국수주의적 정당의 발흥 문제’와 관련지어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형태의 테러는 인명 피해를 낳고 인종갈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무엇보다 신나치와 국수주의적 극우 정당의 성장에 일조하는 악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다른 인종의 테러와 그 쌍생아인 신나치의 과격행위가 반복되면 그전까지 부정적으로 간주되던 온건 극우정당 ‘스웨덴 민주당’(이민자 추방 주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면서 보수 국수주의 정치와 난민 차별 등 미국과 유사한 현상이 강화될 수 있었다. 이미 “북유럽 4개국에 국수주의적 성향의 정당이 확고히 자리 잡”³⁸⁾은 상황에서 이러한 극우정당의 실험이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에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독일³⁹⁾에서까지 성공하면 유럽의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가 위협받는다든 게 작가 요나스가 특히 우려한 정치현상이었다.

스웨덴과 함께 독일이 거론되는데, 작가가 중요한 나라로 독일을 지목한 것은 그만큼 유럽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편 독일도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알란 칼손이 독일에 직접 가지 않지만 독일을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다음의 구절에서 잘 나타난다. “자유세계의 리더가 트위터에서 자기 나라 국민의 특정 계층을 욕박지르는 일에 업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자, 세상은 그의 대체자를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의 선택은 예순세 살의 앙겔라 메르켈로 향했다.”⁴⁰⁾ 독일은 경제적으로 유럽의 최강국이

37) 앞의 책, 268~269면.

38) 앞의 책, 266면.

39) 참고로 미국 9.11의 국제적 테러리즘은 독일에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무역센터 공격에 참여한 가해자들 중 여럿이 함부르크 바로 외각에 있는 하르부르크 기술대학 학생으로 독일에 거주하고 있었다. 9.11테러의 여파로 내무부 장관이던 사민당의 오토 실리는 미국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차용한 반테러 조치들 —의심스러운 은행 계좌 조사, 여객기 보안 요원, 증가된 국경과 이민 통제—에 더해, 증오와 폭력을 설교하는 급진적 종교 집단을 감독할 권한을 포함한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10년에는 베를린주 정부의 전직 재무 담당장관 킬로 자라친이 『독일이 망해가고 있다』를 통해 무슬림들이 독일의 관대한 복지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독일에 왔다고 주장해 사민당에서 추방당하지만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디트릭 울로 저, 문수현 역, 『독일현대사』, 미지북스, 2019, 764~767면.

었고, 정치적으로도 존경받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었다. 주인공 알란 칼손이 미국에서 트럼프를 만나고 그를 신뢰하지 못해서 4kg의 농축우라늄을 넘긴 상대가 독일 메르켈 총리였다. 작품 마지막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신점 사업을 포기하고 아스 파라거스 사업을 구상하던 차에 알란 칼손이 우연히 두 번째 북한의 밀수 농축우라늄 400kg을 획득했을 때도 그는 독일 비밀정보원을 통해 메르켈 총리에게 연락하고 넘긴다. 또한 이 작품에서 북한의 농축우라늄 해양 밀수를 추적하는 정보기관도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다. 이처럼 작가는 세계평화를 위한 주요 임무를 미국 대신 독일이 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독일도 보수화되고 있다. 알란 칼손이 400kg 우라늄을 건네는 시점으로부터 사흘 후 독일 총선이 있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2017년 9월 24일 독일 연방의회 선거가 있었다.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제1당 기독교민주당(CDU)·기독교사회당(CSU) 연합은 32.9%를 득표해 그전보다 65석을 잃었다. 제2당인 사회민주당은 40석을 잃었다. 하지만 극우정당인 독일의 위한 대안(AfD)은 12.6%를 득표해 94석을 확보하고 제3당으로 연방하원에 진입했다.⁴¹⁾ 그만큼 극우정당의 쫓기는 전 유럽적인 현상이었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지나치듯 잠깐 언급한 프랑스도 2017년에 대선이 있었다. 2017년 대선에서 마린 르펜의 민족전선이 결선투표에 진출하면서 프랑스에서도 극우세력의 선전이 나타났다. 마린 르펜은 2017년 대선 1차 투표에서 21.3%를 득표해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고, 결선투표에서는 33.9%를 득표했다. 2017년 대선에서 마린 르펜과 민족전선은 2010년대부터 새롭게 추구해왔던 ‘탈악마화’의 담론전략을 꾸준히 펼쳤다. 탈악마화란 1980년대부터 2010년 정도까지 아버지 르펜이 만들어 놓았던 극우 민족 전선의 악마 또는 악동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평범하고 수권 가능한 정치세력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 핵심은 공화주의의 강조였다.⁴²⁾ 그리고 요나스의 소설에는

40)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395면.

41) 2017년 선거에서 독일사회는 1945년 이후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극우정당을 보며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독일의 위한 대안(AfD)은 공공연하게 외국인을 혐오하는 선거운동을 벌이고도 선거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난민, 여성의 권리 향상, 평등결혼, EU, NATO를 증오하는 AfD는 메르켈의 중요한 정치적 유산인 난민정책을 비판했다. 2015년 이후 중동 출신 무슬림 난민이 100만 명 가까이 독일에 유입되었다. 2015년 이후로 독일에 입국한 난민의 수는 1년에 20만 명 이하로 급격히 줄었다. 그러나 UN난민기구에 따르면 독일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에 속한다. 케이티 마튼 저, 윤철희 역, 『메르켈 리더십』, 모비딕북스, 2021, 354~379면.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도 언급됐다. 이 결정은 영국에서 ‘유럽 지역통합 지지 세력’과 ‘영국의 국가통합 지지 세력(유럽 회의주의)’ 간의 대결에서 후자가 승리한 결과였다. 이처럼 작가 요나스 요나손은 미국 KKK와 트럼프의 극우 포퓰리즘 정치를 보면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극우정당의 쫓기와 신나치 성장, 민주주의의 약화 현상을 주목하고 비판적 정치의식을 갖고 작품을 집필했던 것이다.

게나의 지휘하에,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은밀한 전쟁을 시작했다. 일단의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인터넷에 들어가고, 미국 프로 야구팀 모자를 쓰고, 닥터 페퍼 캔을 따고 …… 그리고 공격을 개시했다. 미국 내부에서부터 말이다. 전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각종 블로그와 웹 사이트에서 벌어졌다. 이 인터넷 전사들은 스스로 미국인인 체하면서 사방에 대고 총을 쏘았다. 하루는 좌파 운동을, 또 하루는 우파 운동을 지지했다. 페이스북에서는 미국 국가가 울릴 때 무릎 꿇은 미식축구 선수를 응원하면서 트위터에서는 동일한 선수를 애국심이 없다고 비난했다. 보다 엄격한 총기규제법을 지지하는 동시에 같은 법에 대해 항의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 분개하기도 했다. 의료 보험 개혁을 위한 모든 시도들에 박수를 치기도 하고 욕을 퍼붓기도 했다.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온갖 의견을 내놓았다. 그들은 균중을 —그들이 누구든, 무엇을 주장하던 관계없이— 흥분시켰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미국인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었다. 분열시켜서 국력을 약화시키는 거였다.⁴³⁾

42) 홍태영 외, 『유럽의 타자들』,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136-204면; 참고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는 2017년에 이어 2022년 4월 24일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선 결선에서 맞붙어 58.55% 대 41.45%로 패배했다. 하지만 2017년에 비해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다. 르펜 후보는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듯했으나 극우 정체성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불법 이주민과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내쫓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등 이민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르펜 후보가 2014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가 있는 퍼스트 체코 러시아 은행(FCRB)에서 960만 유로를 대출받았고, 여전히 채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 부담으로 작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 정권과 가까운 은행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면서 어떻게 러시아 앞에서 프랑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프랑스 대선 또다시 극우 대통령 거부한 프랑스』, 『연합뉴스』, 2022.4.25.

43)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308-309면.

그런데 작가는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난민 유입과 극우세력의 성장에서만 찾지 않았다. 북한의 핵개발 뒤에 러시아와 푸틴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정치갈등과 사회적 혼란의 배후에도 러시아가 있다고 설정되었다. 작품 속 스웨덴 신나치 형제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도 푸틴의 오른팔 계나의 작업이다. 러시아에 부정적인 작가의 정치의식이 또다시 확인된다. 게다가 인용문에서 보듯 작품 속 푸틴의 오른팔 계나와 러시아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각종 블로그와 웹 사이트”를 통해 미국 내부의 분란을 조장했다. “계나의 인터넷 부대”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 분개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미국 사회를 “분열시켜서 국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작가는 그 성과가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었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로 나타났다고 서술했다.⁴⁴⁾ 다만 러시아의 인터넷 공작은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기대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작품 속 미국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자기정치를 하며 자국을 분열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푸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갈등을 창출하고 극우를 강화하며 서방 세계의 통합과 단결을 훼방하는 ‘인터넷 전쟁’을 하고 있다. 스웨덴 작가 요나스는 작품에서 푸틴과 계나가 “러시아를 걸맞은 위치에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그들의 공동목적”⁴⁵⁾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정치의식을 드러냈다.⁴⁶⁾ 트럼프도 ‘위대한 미국의 부활’을 주창했지만 작가는 이를 언급하지

44) 앞의 책, 506-507면; 러시아가 미국 힐러리 측 이메일과 민주당 고위 간부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대선에 개입한 ‘러시아 스캔들’은 실제로 있었다. 대선 한 달 뒤 2016년 12월 미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2017년 5월 17일 전 FBI국장 출신의 로버트 무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2019년 3월 특검 보고서는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에 공모했거나 협력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미 의회는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초당적으로 인정했다. 박홍용, 『트러피즘은 사라지지 않는다』, 메이킹북스, 2021, 51~59면.

45)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506면.

46) 참고로 언론인 제임스 볼도 작가 요나스와 유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명확성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혼란은 독재자의 도구다. 저질정보, 망상, 허위 정보는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정보 스모그를 만들어서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 합의하려는 시도를 소모적으로 만든다. 사회 전반에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독재자와 전제군주, 선동꾼이 힘을 얻는다. 구소련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정보 전략 목적이 정치 선전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분열과 불확실성을 낳아 푸틴이나 그의 어젠다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담론이 나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않고 ‘위대한 러시아’를 지향하는 푸틴에 부정적인 반러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지금 여기의 관점에서 보면 작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야심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셈인데 실제로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과 이에 따른 유럽의 대러시아제재 움직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을 마지막까지 다 읽은 독자는 처음에 책표지의 앞뒷면을 통해 이 소설이 ‘북한 핵개발의 감정은과 트럼프의 갈등, 트럼프 비판 서사’라고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어 이 작품이 미국과 유럽의 인종 혐오정치 및 극우(정당) 창궐과 그 배후에서 ‘위대한 소련’을 다시 꿈꾸는 푸틴의 야심을 비판하는 반러 소설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특히 스웨덴과 독일을 유럽 최고의 복지 선진국 가로만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 한국독자에게는 해당 나라의 신나치와 극우정당의 쫄기 현상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가짜뉴스와 혐오정치 등은 반엘리트주의, 반세계화주의, 반진보적 사회질서의 세계적 확산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작가가 서사화 한 ‘트럼프와 푸틴, 유럽의 극우(정당)’의 존재는 서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환기한다. 그리고 작가는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고 독자에게 부정적 정치현상의 진면목을 유머, 풍자, 직접 알려주는 방식⁴⁷⁾으로 정치적 각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노력을 했다. 그만큼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은 유머소설, 풍자소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 때 동우크라이나에서 펼친 군사작전은 당시 러시아의 정보전 전술을 서구 대중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러시아의 전략의 목적은 객관적 진실은 없고 믿을 만한 미디어가 없으며 서구의 뉴스 미디어를 포함해 모든 뉴스가 단지 정치 선전에 불과하다고 믿게 하는 것이었다. 탈진실사회의 접근법은 독재자의 접근법이다. 소모적인 캠페인 때문에 정부와 사법기관, 미디어 등 각종 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대중사이에는 서로 충돌하는 담론이 떠돌 뿐이다. 이 싸움에서 승자는 감정을 자극하고 이목을 끄는 과감한 주장을 하는 쪽이다. 보통 그런 주장은 역사가 보여주듯 소수집단들을 악마로 몰아간다.”(제임스 볼 저, 김선영 역, 『개소리: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다산초당, 2020, 361~363면). 다만 작가 요나스 요나손이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을 염두에 두고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을 썼는지는 소설 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47) 일례로 “정말이지 서구의 얼치기 민주주의는 리비아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유럽에 끊임없이 밀려드는 난민들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특한 존재였다. 그 불쌍한 중생들 중 하나가 유럽 대륙에서 가장 명칭한 나라 중 하나에서 체류증을 얻을 때마다, 이웃나라에서는 그만큼 외국인 혐오증이 커지니 말이다. 도움 주기를 꺼리는 마음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라에서 가장 강했다. 원래 인간의 혐오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508면.

설이면서 진보정치를 지향하는 스웨덴인 입장에서 쓴 대중 정치소설이었다.

이 작품이 21세기 세계 정치의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고 정치문화를 후퇴시킨 책임을 미국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에게 묻고 강조하는 것은 정치문화의 전파와 일국을 넘어선 강대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그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유럽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거나 외면하는 효과가 있다. 유럽 각국의 인종 혐오, 극우정당 및 신나치의 켜기, 보수화 등의 정치현실은 푸틴과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며 작가가 집필한 2016-2017년 무렵만의 정치현상도 아니다. 이미 유럽에서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네오파시즘 지지자들이 늘어났고 노골적으로 인종주의를 표방한 극우 단체의 운동이 활발해진 것은 유럽의 ‘강한 인종주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표였다. 유럽에서 극우파의 부상을 보여준 가장 극적인 사건은 2002년 프랑스 대선이었다. 네오파시스트 국민전선 당수 르 펜이 550만 표를 얻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영국의 영국국민당은 북부 도시들과 런던 이스트엔드에서 지방의회 의석들을 거머쥐었다. 파시스트조직인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은 ‘민족연합’이라는 정당형태로 베를루스코니와 손잡고 연립정부에 진출했으며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인민당(SVP)이 2003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됐다.⁴⁸⁾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유색’ 이주자에 대한 불쾌감과 혐오가 민족, 지역, 종교, 문화, 실업, 경제, 복지 등과 여러 방식으로 결부되면서 인종주의의 정도와 형태가 결정되고 세력이 형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2017년을 쟁점화한 작가의 정치의식은 역설적으로 독자에게 인종주의와 세계화의 누적된 역사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게 하고 인종 혐오 청산이라는 난제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21세기 세계정치와 정치문화 문제에서 ‘트럼프식 정치’뿐만 아니라 ‘인종주의’ 문제가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다는 점이 환기되고 있다.

IV. 나가며: ‘태블릿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옥스퍼드 사전은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을 거론할 때 자주 쓰였다고 하며 ‘포스트 트루스(Post Truth)’를 2016년 올해의 국제적

48) 알리 라탄시 저, 구정은 역, 『인종주의는 본성인가』, 한겨레출판(주), 2011, 273~275면.

단어로 선정했다. 그리고 2017년은 북한 핵실험의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의 갈등의 해였다. 또한 2017년 독일, 프랑스 등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었다. 이러한 국제관계와 정치현상을 지켜보면서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은 핵전쟁 위협뿐만 아니라 스웨덴과 독일 등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우정당의 성장을 상기하게 된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2018)은 그 결과물이다.

작품 속 트럼프가 국내에서 지지층의 결속을 위해 활용한 ‘가짜뉴스’, 탈진실과 트위터는 일종의 혐오정치였고, 그리고 해고 정치는 인사 권력과 권위를 이용한 협박의 정치였다. 이러한 방식이 국외에서는 다른 국가의 지도자를 폭탄으로 위협하는 ‘전쟁 정치’로 변용됐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핵을 정권과 국가안보의 유일한 해답으로 여기는 김정은에게는 잘 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백인우월주의에 기반한 혐오정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에 인종혐오와 테러, 종교 등이 뒤섞인 문화적 인종주의로 표출되고 확산되었다. 격한 대립과 낙인, 분노의 정치는 구별짓기와 혐오를 양산하고 확산했다. 대화와 통합, 평화와 질서, 민주주의 정치의 지향성이 점차 무력화 되었다. 그리고 작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쇠락의 책임을 김정은, 트럼프, 극우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러시아로 지목했다. 작품 속 러시아는 북한에 플루토늄 제조 전문기를 파견하고 원심분리기를 제공했으며 북한과 트럼프의 갈등을 부추기고 인터넷 부대를 통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미국의 분열을 조장했으며 영국의 브렉시트를 지원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스웨덴 등 유럽 각국 신나치에 자금을 지원하여 극우세력의 성장을 지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럽과 세계정치의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인물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이다. 그래서 알란 칼손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4kg과 400kg을 모두 메르켈에게 넘기고 일행과 함께 케냐 고원에서 아스파라거스 재배 및 수출 사업을 하며 작품이 끝난다.

그렇다면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에서 이러한 국제정세 판단과 정치의식을 드러내어 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작가가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해 내린 대응책은 무엇일까. 그 답은 주인공 알란 칼손의 ‘손’에 있다. 그가 든 것은 ‘핵’뿐만이 아니다. 그가 4kg 농축우라늄이 든 가방을 손에 들고 있던 시기는 작품 초중반 북한에서 미국 뉴욕UN본부로 가는 부분에 불과하다. 작품 마지막에 케냐에서 400kg을 옮기고 있는 운반책과 우연히 만나 핵을 빼앗았을 때도 그는 독일 메르켈에게 연락해 며칠 만에 넘겨버린다. 이에 비해 그가 작품 초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부터 작품이 끝날 때까지 손에서 한시도 놓지 않는 게 ‘태블릿’이다. 발리에서 무료하던 차에 아이패드

를 알게 된 알란은 호텔 매니저를 통해 검은색 아이패드를 얻게 되는데 이 기기를 통해 각종 기사를 읽으면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노인이 ‘정치적 인간’이 된다. 그래서 알란이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도 트럼프가 하는 말을 태블릿의 기사와 견주어보며 허풍과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것을 판별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작가 요나스는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와 가짜뉴스 양산, 푸틴의 인터넷 전쟁이 세계적으로 분노와 혐오, 오해를 부추기지만 태블릿을 잘 활용하면 정치적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고 독자에게 얘기한다.

율리우스가 돌아오자 그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비용은 동 아프리카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의 무려 네 배에 달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뭘요? 동아프리카의 기아?」 율리우스는 알란의 검은색 태블릿을 부딪쳐 버리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비참에 대해 눈을 뜨기 전의 그 노인네가 너 무나 그리웠다.49)

일례로 인용문처럼 알란 칼손은 태블릿을 통해 미국-멕시코 장벽 비용이 “동아프리카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의 무려 네 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태블릿은 가짜뉴스와 혐오를 실어 나르지만⁵⁰⁾ 진실의 정보도 있다. 세계의 정보가 모이는 태블릿의 기사를 보고 “세상의 모든 불행과 비참에 대해 눈을 뜬” 알란 칼손은, ‘정치적 인간’이 된다. 그래서 그는 트럼프의 지도자성을 기능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한 후 핵을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게 넘겨버린다. 이처럼 알란 칼손은 태블릿으로 자국과 국제정치·사회사를 공부하고 알게 되면서 소위 혐오의 ‘정치언어’를 깨부수고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점차 갖춰 간 것이다.

49) 요나스 요나손 저, 앞의 책, 142면.

50) “연구자들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인류의 평균지능이 점차로 낮아지고 있었다. 또 알란은 태블릿을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대화 능력을 잃는다는 기사를 읽었다. 태블릿은 그것의 주인과 대화하기 보다는 그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터넷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기 대신 생각하게 하여 결국에는 바보가 된다는 거였다. 알란은 지성이 약해지면 더불어 진실도 힘을 잃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걱정에 사로잡혔다. 전에는 참인 것과 참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쉬웠다. 술은 좋은 거였다. 2 더하기 2는 5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게 되고 나서부터, 같은 것을 여러 번 말하는 사람이 진실인 세상이 되었다.” 앞의 책, 512면.

온라인을 장악한 댓글부대와 혐오 갈등, 사이버전쟁으로부터 혐오사고와 행동이 전염되지 않고, 사실과 과학에 뿌리 내리지 않은 가짜뉴스와 ‘개소리(bullshit, 진실도 거짓도 신경 쓰지 않고 마구 내뱉는 허구의 담론)’를 용인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갈라치기 정치가 소수자와 약자 전반으로 확대되어 인종갈등, 백인 우월주의, 아랍인 비하 및 범죄자화, 종교 갈등 및 테러 등으로 표출되는 현실에서 작가 요나스 요나손은, 독자에게 알란 칼손처럼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핸드폰, 태블릿 등을 통해 정치적 각성을 하고 스스로 가짜뉴스를 분별하여 혐오와 극우의 발흥을 막고 설득과 합의의 민주적 리더십과 상호존중의 대화정치 문화가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푸틴과 트럼프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보여줬듯이, 세계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미디어를 긍정적 정치개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나스가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한 시민적 교양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한 정치적 판단력의 습득은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 이것이 중립국 스웨덴 국민이자 유럽인, 세계시민으로서 요나스가 제안하는 시민의 정치적 올바름이다. 그런 점에서 진보성향의 스웨덴 작가 요나스는 독자에게 실질적으로 ‘태블릿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을 담은 정치소설을 제시했다.

다만 작가의 의도와 별개로 그의 트럼프 비판과 러시아 음모론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독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북한 핵개발, 김정은, 트럼프, 극우, 혐오 정치의 만연 등을 관통하는 작가의 일관된 관점은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였다. 하지만 작품에서 트럼프와 극우 현상은 일방적 비난과 조롱의 대상일 뿐 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 그 현상이 성찰되지 않고 있다. 이 작품에는 보수의 사고와 욕망, 기성정치의 한계가 사실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보편적 인간 공동체의 이상적 도덕에 기초한 세계시민주의⁵¹⁾의 ‘정치적 올바름’⁵²⁾만이 제창되고 있는 것이다.

투고일: 2022.04.27

심사일: 2022.06.01

게재확정일: 2022.06.20

51) 여기에 대해서는 손원경, 「세계화의 양면성과 세계시민주의의 전망」, 『윤리교육연구』 30,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273~298면 참조.

52) 40년간 미국을 지배한 ‘정치적 올바름’ 논쟁 그리고 ‘위선과 예외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강준만, 『도널드 트럼프: 정치의 죽음』, 인물과사상사, 2016, 10~32면, 334~369면을 참조할 것.

참고문헌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겨레』

요나스 요나손 저, 임호경 역,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2018), 열린책들, 2019

강준만, 『도널드 트럼프: 정치의 죽음』, 인물과사상사, 2016

김연철, 『70년의 대화』, 창비, 2018

디트릭 올로 저, 문수현 역, 『독일현대사』, 미지북스, 2019

박홍용, 『트리피즘은 사라지지 않는다』, 메이킹북스, 2021

알리 라탄시 저, 구정은 역, 『인종주의는 본성인가』, 한겨레출판(주), 2011

앨런 브링클리 저, 황혜성 외 역,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3』, 휴머니스트, 2011

이현송, 『혁신과 갈등, 미국의 변화』, 한울엠플러스, 2016

임기홍, 『위기의 남북관계』, 역사인, 2016

정육식, 『핵과 인간』, 서해문집, 2018

제임스 볼 저, 김선영 역, 『개소리란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다산초당, 2020

케이티 마튼 저, 윤철희 역, 『메르켈 리더십』, 모비딕북스, 2021

홍태영 외, 『유럽의 타자들』,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문승준, 「네덜란드 및 스웨덴 극우 정당의 성장과 한계」,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21

손원경, 「세계화의 양면성과 세계시민주의의 전망」, 『윤리교육연구』 30,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2017 North Korea Nuclear Test and Hate Politics,
Kim Jong Un, Trump, Far Right
— Jonas Jonasson, *101-year-old man who fled
with nuclear weapons* (2018)

Lee, Haeng-seon

101-year-old man who fled with nuclear weapons(*Hundraettaringen som tankte att han tankte for mycket*) by world-renowned humorist Jonas Jonasson (2018) was translated into Korea in 2019. There was a conflict between Kim Jong-un and Trump in the U.S. during the 2016 British Brexit referendum passed, Donald Trump's election as the U.S. president, and North Korea nuclear test in 2017. Watching this, the Swedish writer recalls not only the threat of nuclear war, but also the spread of hate politics and the growth of far right parties in Europe such as Sweden and Germany. And the writer said, "I want to talk about the world as it is. I also want to talk indirectly about what the world should be like," he said, writing a novel. In short, it is a novel created by a writer who dreams of a better world and wants to share problems, truth, and lesson of the time, so the political perspective and meaning of this work as a political novel can be said to be a task to be further clarified.

Key Words : Nuclear Test, Refugees, Hate, Fake News, Political Correctness